

북 “심각한 상황 직면” 경고에 미 “적대 아닌 해결이 목표”

설리번 보좌관 역대 미정부와 다른 ‘실용적·외교적 접근’ 기조 재확인 적대정책 철회 요구 북에 새 제안은 안내놔...협상 재개까지 험로 예고

미국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를 문제삼은 북한의 반발에 대해 적대적이 아닌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과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에서 탈피해 실용적 접근을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향을 재확인했지만, 새 제안을 내놓는 대신 북한의 호응을 주문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

ABC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대북 정책은 적대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해결을 목표로 한 것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첫 의회 연설에서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한국 시간 2일 담화를 내고 “대단히 큰 실수”, “실언”이라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한 반응이다.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 형태로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의 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성명에 두고서도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최고준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을 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두 성명은 시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새로운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힌 이후 나왔다. 따라서 이번 담화가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직접 평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 적대정책 철회 등 만족할 만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새 대북 정책이 ‘전부 또는 전부’ (all for all, or nothing for nothing) 방식이 아니라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라고 언급하며 과거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겠다는 기조 역시 재확인했다. 지난달 30일 백악관 대변인이 정상 간 담판을 통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괄타결’이나, 지속적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려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우리는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과 대화 의지를 강조했지만 북한의 관심을 끌 만한 새로운 제안이나 유인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에 제재 완화 등 당근을 먼저 내놓는 방식으로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협상 테이블을 꾸려 양측이 일단 만나서 수순이라는 미 행정부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미국도 상응한 조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우리는 그 목표(비핵화)를 향한 길에서 진전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실용적 조치에 노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얀마 남부 다웨이에서 지난 2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대가 빨간 색칠을 한 옷을 입고 독재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고 있다. 옷에 칠한 빨강은 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시민들의 피를 상징한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쿠데타 이후 군경의 폭력으로 사망한 시민이 759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미얀마 사태 ‘발등의 불’...아세안, 미중과 조기회담 추진

“합의안 이행에 미중 지원 필요”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미국, 중국을 대화에 참여시키기 위해 조기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다. 3일 아세안 외교부에 따르면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정상회의에서 내놓은 합의안을 이행하려면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세안은 매년 하반기에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중국, 미국과 외교장관회의를 가진다. 올해는 8월 초에 제54회 아세안 외교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미얀마 사태 논의를 위해 미중과 조기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24일 특별정상회의 후 발표된 아세안 의장 성명 6항에는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제54회 외교장관회의에 앞서 가능한 한 빨리 중국, 미국과 회담할 것을 지시했다”고 명시돼 있다. 아세안 관계자는 “중국과 회담 준비가 진척돼 조만간 만날 수 있을 것이지만, 미국과는 회담 형식 등을 두고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고 네티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주아세안 한국대표부는 “중국은 중-아세안 수교 30주년이라는 의미 외교장관회의를 요청했고, 미국도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아세안에 별도로 외교장관 회의를 하겠다고 요청한 상태로 있다”고 설명했다. 미얀마에서는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뒤 군경의 발포와 폭력에 시인 765명이 숨지고 4600여명이 체포됐다. 아세안은 ‘내정 불간섭’

원칙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달 2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세안 사무국 청사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었다. 아세안은 태국-필리핀-라오스 등 3개국 정상이 불참한 가운데 미얀마의 즉각적 폭력중단, 아세안 의장과 사무총장이 특사로서 대화 중재를 맡고 현지 방문 등 5개 합의안을 마련했고,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이 이에 응했다. 서방 국가들은 아세안이 미얀마의 회원국 지위 정지와 대미얀마 투자 중단 등 강경책을 내놓길 원했지만, 아세안은 ‘대화 중재자’로서 미얀마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정했다. 국제사회는 아세안의 활동을 지지하면서도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별정상회의에서 ‘즉각 폭력중단’ 등 합의안을 발표 뒤에도 미얀마에서는 폭력이 이어져 최소 1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홍콩, 보안법 이후 첫 텐안면 시위 추모 행사

홍콩대서 ‘수치의 기둥’ 청소 행사 정부, 6월4일 집회 신청은 보류

홍콩에서 지난해 6월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6·4텐안면 민주화 시위 관련 추모 행사가 진행됐다. 3일 홍콩01 등 홍콩매체에 따르면 전날 홍콩대에서는 ‘수치의 기둥’(Pillar of Shame)을 청소하는 연례 행사가 열렸다. ‘수치의 기둥’은 1989년 중국 텐안면 민주화 시위를 추모하는 조각상으로 1997년 홍콩대에 세워졌다. 매년 텐안면 시위 추모 집회를 주최해온 홍콩시민지원회 국민주운동연합회(支聯會·지련회)가 이 행사를 진행했다. 지련회 리척안(李卓人) 주석이 2019년 두 차례의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최근 징역 14개월을 선고받으면서, 같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앨버트 호(何俊仁) 부주석이 행사를 이끌었다. 참가자들은 목념을 한 뒤 ‘일

동 독재 종식’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의 주석을 지내기도 한 앨버트 호는 “조각상 청소 행사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홍콩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죽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홍콩대가 총학생회와의 절연을 선언한 지 이틀 후 열렸다. 지난달 30일 홍콩대는 총학생회가 정치화되고 있으며 홍콩보안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 홍콩01은 “홍콩대 총학생회가 세운 ‘수치의 기둥’의 캡셔스 내 존치 여부도 불확실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청소 행사는 최소 6명의 보안요원이 현장을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련회가 매년 6월 4일 빅토리아 파크에서 주최해온 텐안면 시위 추모 집회는 올해도 불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홍콩 정부는 지련회의 빅토리아 파크 집회 허가 신청에 대해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연합뉴스

키신저 “미중 신냉전, 미소냉전보다 위험”

“핵·AI까지 확대...인류말살 가능”

국제정치 거목으로 통하는 헨리 키신저(97)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간 ‘신냉전’이 과거 미소냉전보다 전 인류에 훨씬 더 큰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2일(현지시간) 영국 선데이타임스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에리조나주립대 산하 매케인 국제리더십 연구소가 주관한 ‘세도나 포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 긴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가장 큰 문젯거리”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중 간 냉전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양국의 군사력, 경제력,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신냉전이 과거 미소냉전보다 인류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미소냉전

때 개발된 핵무기가 이미 전 세계를 파괴할 수 있을 만큼 위력적이었는데, 그간 더 발전한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인류 전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키신저 전 장관은 “인류는 역사상 처음으로 유한한 기간에 스스로 말살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됐다”면서 “70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위력을 손에 넣었다”고 진단했다. 미소냉전이 핵무기 준비 경쟁에만 치중할 만큼 지금의 미중 신냉전보다 일차원적이었던 평가도 이어졌다. 키신저 전 장관은 “옛 소련은 지금 중국이 가진 개발, 기술 역량이 없었다”면서 “중국은 상당한 군사강국이면서 동시에 경제강국”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핵 문제에 인공기능 등 첨단기술 문제까지 더해졌고, 첨단국가 간 대결이 벌어지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